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상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na
nmaum

법공양 페이지

“악도 선도 긴것도 짧은것도 놓으세요”

15면에서 계속

우자구 현실에 놓으니까 과거에 입력된 건 자꾸 없어지고 새로 입력된 게 풀려 나온다고요. 즉 자기가 지어놓은 나쁜 거 이런 것이 모두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급하게 과거에 진 모든 업보를 한번만 관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쉬운 것도 있죠.

그래서 늦게 된다 금방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건 자기 할 탓이니까요. 자기 지혜에 달려있고 요량에 달려있어요. 공용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냥 자기가 현실에 사는 것처럼 산다고 하느냐 이게 문제죠. 우리는 그대로 공용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그대로 공식하고 있고요. 경전에서 원시라고 합디만은 그냥 공식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먹는 것만 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나오는 모든 걸 거기가 집어넣는 것도 공식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든지 대처를 하고 어떤 것들든지, 보이지 않는 데서 나를 친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고 보이는 데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고 모든 걸 자기가 여여하

그래서 진짜 아는 사람은 말이에요. 접시가 와서 이게 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땐 접시인데, 종이라고 부둑부둑 우기는 거야. 그러면 ‘아이, 그래 접시야.’ 하고 같이 접시가 돼 주는 그런 자비야. 그런 지혜가 필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짧은 것도 밟고 긴 것도 밟는다. 긴 것은 긴 것대로 짧은 것은 짧은 것대로, 내가 볼 때는 똑같아요.

어느 스님이 산은 산이고 들은 들이라고 그랬대요. 허허허. 단 건 단 거고 쓴 건 쓴 거고 말이에요. 그대로 여여하다는 소리죠. 우리가 힘이 없이 하고 가니까 이 세상이 다 그대로 여여하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고정된 것도 하나도 없습디다.

보세요. 내가 여태 말했는데요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벌써 1초전이 과거거든요 몇 천년만 과거가 아니라 1초전도 과거예요. 그랬으니 내가 했다. 과거에 내가 뭘 어떻게 했어, 죄를 많이 졌어, 이렇 것도 없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단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렇게 원만히 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길이 트여져요.

심히 마음으로 도와주다보면 자기한테 보증을 서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죠.

종중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어린애가 임신 했는데 병원에서 기형아가 될 확률이 80% - 90%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그래요. ‘그 아이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한테 관하십시오. 정상으로 나오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그렇게 쉽게 말하니까 못 믿는 거죠. 자기한테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아무리 일러줘도 도대체가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일은 다급하고 가르쳐준대로 열심히 관했나봐요. 후에 다시 와서 그래요. ‘병원에서 다시 한번 보자고 해서 보더니만 정상이라고요.’ 그러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수처에 거치면서 업이

고 사는 것은 그 도리를 알고 그렇게 해 나가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어디서 인연 풀이 닿았든지 간에 인연이 돼서 먹고 살게 돼 있다고요. 이런 거것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너무 가난해서 차비가 없어서 못 오는 사람이 있겠지. 그 집 조상들을 전부 불러서 그집을 도와주게 만들죠. 그런 때도 더러 있었어요. 그러니 살다보면 별의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결말 없이 해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요 다음 생애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도반으로서 한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까지 요다들 생애나 세세생생애 또 얽혀서 고생하게 만든다면 보람이 뭐 있었습니까?

또 자식들도 그래요. 자식들한테도 조

뇌혈관 검색 않고 있어요

스님! 저는 울산지원에서 온 최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스님께 제 건강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 9월경에 저는 왼쪽 팔다리가 갑자기 힘이 없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본 결과 오른쪽 뇌혈관경색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심해지면 반신 불수가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물치료로도 완전히 될 수는 없다고 하여 큰 병원에 가서 뇌혈관 확장 수술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선원에 다니지 3년째 되는데 저는 집에서 그대 ‘주인공’이라는 것도 보고 살리는 것도 너무나 좋아서 해 하고 매일매일 관하고 있습니다. 스님, 한마음 내주시요.

이 공부라는 게 때로는 사정없이 그 결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을 때 애굽니다. 갈림길에 있을 때 ‘아이구, 어차피 한번 죽지 두 번 죽어.’ 이라고 딱 버릴 때, 순간 그게 있는 거지, 그렇게 다닐 때 다 다니고 마음이 급해서 뛰는데 그러면 이것은 세가 먹힐 것 같아요. 물론 다니는 것도 법이죠. 그러나 왜 그렇게 주인공을 부르는데도 안 되느냐 할 때 내가 답답해서 그러죠.

원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피가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온몸 쏟아지는데 의사들이 수처에 들어가 봐도 어디서 나오는 줄 모르는 거예요. 머느리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으니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아주 급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들은 또 아주 높은 관직에 있고 하니 밑꼬머자 쓰고 거지같이 하고 다니는 나같은 건 참 우습죠. 그러나 머느리가 피는 자꾸 쏟아내는데, 병원에서는 알아내지도 못하고 시간이 자꾸자꾸 가니까 그 시어머니가 아마 나를 결사적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도 원할수록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거지같은 나를 들여보내겠소. 허허허. 시어머니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겨우 나를 데리고 갔는데 나는 들어가자마자 밭도 끝도 없이 ‘사후 후에 퇴원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사후 후에 퇴원시키겠습니까?’ 하고 말이에요. 그랬으니 그쪽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소?

소해서 그 참... 이런 심성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병원마다 있으면 유전성이나 이런 것이 다 없어지면서 다른 병도 나올 수 있을텐데... 이런 말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문득 나네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들어가서 그냥 전지철 잇듯 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체가 없는 마음이라는 게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또 천차만별의 보살들의 마음이에요. 보살들이라고 이름 해놓은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관세음 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하는 그 이름들이 전부 깨우친 부처님의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만명이 깨우쳤다 하더라도 한 부처거든요. 일불이요, 전부. 그래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할 것이 없고. 부처님까지도 내가 했다. 내가 앞으로 한다. 내가 있다. 내가 부처다. 이런 소리로 절대 할 수 없는 도리가 이 도리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낫는 것도 집어 할 탓이요. 얼마만큼 자기 몸을 먼저서 주인공에다 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해결이 나는 것이니까요.

뇌혈관 촬영 고민됩니다

에, 스님. 잘 알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잠깐 관하고 있는 도중에 오른쪽 뇌에서 이상한 물질이 속어서부터 즉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촬영을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위험률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않고도 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요?

그것은요 누가 해라 마라 이럴 수 없어요. 딱의 마음도 내가 이걸 하느냐 안하느냐 왔다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하는 것도 법, 안 하는 것도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한번죽지 두번죽나’
하고 딱 버릴때
한마음 되듯
이 공부는
사정이 없습니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리는 이리로 가도 좋고 저리로 가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방사선 치료를 하면 구역질을 하고 온통 아단들인데요. 마음공부 하면서 관하면 방사선을 쬐어도 끄떡없대요. 왜냐하면 그 의사가 하는게 아니라 의사가 화해서 정말 부처님의 손이 되는 거죠.

신장결석 수술해도 안나오요

저는 지금 오른쪽 콩팥에 직경 2미리 정도의 결석이 있습니다. 작년에 여덟 번을 레이저로 수술해도 그것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빼내는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스님 마음 많이 내주세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복잡다단한 그걸 어떻게 좀더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쉽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결석이 됐으면 그 결석을 어떻게든 오줌이나 대변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대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그냥 세계와 갈려라잖아요. 골창도 지고 그냥 온통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얼마나 복잡한지 길을 모르면 정말 길을 잃어버리겠다는 거죠. 들어가 보니까.

다 자기 할 탓이니까요. 누구를 의지할 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마음 내달라 할 것도 없어요. 그저 부지런히 자기 뿌리한테 관하고 또 관하고 여기도 자주 나오세요. 아, 바깥에 저렇게 꽃피고 새우는 봄이든 될 합니까. 내 마음이 관해야 봄이죠.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놓고 그냥하면 무심히 하기에 모든 죄나 업이 다 없어져요”

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탄 이름은 믿고 탄 형상은 믿으면서 수억겁을 거치면서 진화시키고 형성시켜서 나온 진짜 자기는 못 믿습니까. 진짜 장본인을 믿습니다. 움직여지지 않는 주장본을 싸고 있는 영혼, 자기 영혼. 그 영혼이 없으면 불성은 그대로 있지만 태어나지는 못하거든요. 그 영혼이 구제를 받아야. 구제를 받는다는 건 그렇게 자꾸 해야 영혼과 불성이 풀이 아니게 되면서 이게 그냥 합락이 되는 거예요. 즉 우주가 합락이 되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컴퓨터 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안 았더라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죽는 사이 없이 죽어라 이거지 누가 다 그냥 송장 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송장이 되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선지식들이 방편으로써 말씀하신 것 중에 돌장승이 울고 또는 동자가 울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모두가 자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어린 자식을 두고 가는 부모의 마음이나, 엄마를 잡고 우는 어린 자식의 마음이나 모습은 다들지언정 어찌 마음이야 다르겠습니까. 얼마와 그 자식이 서로 생각하면서 우는 마음이 이게 풀입니까. 그러니 모두 깨우치고 안 깨우치고 이것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단진 말씀인데 깨우치지 않고는 풀리지 않고는 그 대담을 못하죠. 그러니 깨우쳤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놓아버려야 돼요. 긴 거 짧은 거, 긴 것은 긴 것대로 있고 짧은 것은 짧은 것대로 그대로 법이니까 하겠으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없어서 마당에서 계시면서부터 다 리 아판다 말 한번 안하고 이렇게 공부 하러 오셨는데 세세생생에 구르면서 또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기록으로만 믿는다면 나중에 정말이지 남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따르고 저렇게 하려면 저렇게 따르는 소와 같아서 소로 태어날텐데 만약 사람으로 살다가 소가 된다면 심부름만 죽도록 하다가 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또 어쩔니까? 내가 없는 내가 있어야 되요. 완벽하게. 나 없는 내가 있어야 되요. 누구나 나 없는 내가 있어요.

아무 데나 자존심을 세우지 마세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여지지 않는 내 결정된 마음, 그것은 용납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게 있기 때문에, 모든 아만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짧으면 짧은 데로 들어가서 자기도 짧아지고, 길면 긴 데로 들어가서 자기도 길어지고 더러우면 더러운 데로 자기가 들어가 같이 더러워지고, 깨끗해지면 같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논쟁이 벌어지지 않지 너는 그르거나 나는 옳다 그러면 벌써 논쟁이 벌어져요.

이 자연의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 생명체들이 생긴 것도 자연의 이치죠. 회사를 경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회사를 차렸다가 한바탕 잘못 해가지고 망하니까 다시 회사를 일으키듯이 이 세상도 그것과 똑같은 이치죠. 생명체가 자연이 생겨서 그냥 우후죽순 자라듯 하니까 문제는 커졌죠. 그러니 나중에 다 없애버리고 다시 축소해서 잘 다듬은 게 지금 세상이에요.

자연의 법칙은 한치의 예누리도 없고 우연이란 것도 없어요. 우연이라고 말씀들 잘하죠. 그러나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볼 때다 놓지 않았는데 물먹을 게 어딴습니까. 내가 남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받을 것이 있으며, 내가 남을 기쁘게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기쁠까. 그래서 서로 서로가 융하면

서 살라. 혼자 살 수는 없다. 그러니 서로 서로 주고 받으며 살라. 혼자 사는 몸종이도 생각이 한 도량이자 한세상이다. 세상에 생명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어서 공한 도리에서 내 몸종을 안다면 이 세상도 외부도 다 그렇단 얘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도리를 완벽하게 알 수만 있다면 연구하는 분들도 뭐는 못하겠습니까. 오고감이 없이 하나도 오고가면서 다 보이고 다 느끼고 알고 있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몇 년만 가면은 그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았는데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넘어도 길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식구들 중에 도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 죽이려고 그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슬이 취해서 때려도 속에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죽으면 좀 어때요. 아버지한테 맞아 죽으면 좀 어때냐고요. 인생이 낫다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뭐라고 그러게 아등바등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서로 원망하면서.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형제는 형제인데 말이에요.

형제들한테 보증을 서 주고 집을 뺏기고 다 망한 집들이 더러 많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이치도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면 형제들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상대가 모르면 자기라도 그 집이 그렇지 않게끔 관해 주고 열

어겨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쉽게 단번에 풀 수 있는 자체가 바로 또 자기네들인데 그것을 가르쳐줘도 살마하고 안 믿거든요. 길으로는 ‘네.’ 그러면서 속으로 아니올시다예요. 그러면 내가 웃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일러주는 데도 자꾸자꾸 탄 소리고 못 알아들을 때는 정말 가슴 아파요. 그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에이, 세세생생보다도 당장 지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해가지 세세생생은 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아주 벗겨줄 수는 없거든요. 자기 마음을 아파요. 그러니까 우선에 조금만 더 마음을 썼으면 그건 세세생생일텐데 마음 한 생각 중심을 못잡고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우선에만 제대로 뚫고 그걸 얼마나 무서운 건데, 유전이라는 게, 무서운 걸 잘 몰라요.

법당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마음들이 모두 지혜롭게, 벗어나게 할까? 모든 제불이 제 불이라는 것은 한마음이라는 얘기도. 제 불에서 더불어 같이 이분들을 그제 정수리에 생수를, 즉 말하지만 수기를 취해서 빨리 빨리 성장케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아이구 그거 억지로 되는 거 아니냐나 이래요. 올라오면서 그걸 슬퍼요. 나는 바쁜데 모두 꿈도 안 꾸고도 있거든요. 생각들도 안 해요. 우리가 먹고사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급한 건데도, 먹

그만 것부터 자꾸 관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자기가 앞으로 살기에도 편할텐데 안 가르쳐 주고서 힘들다고 그저 공공 앓고 다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식들한테 관하는 것 가르키는데 돈이 없어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왜들 그러는지 몰라요. 조그만 힘쓰면 되는 건데 말이지.

어떤 분은 자식이 시험을 봐도 영 안 되고 돈도 더 이상 없고 아이도 힘들어하니가 생각을 깊이 해봤더랍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식탁 위에도 이렇게 ‘너에게도 뿌리가 있다. 과거의 너를 믿어라. 진짜 너의 주인공을 믿어라’ 이렇게 써서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아이 방에도 붙이고 하여튼 그 애가 다니는 데는 다 붙여놓았대요. 바깥에 벽까지. 그러니 얼마가 그렇게 붙여놓았으니까 뭘 수는 없고 그냥 오다가다 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차, 나한테 내 뿌리가 있다고 했지.’ 하면서 자기를 믿게 되니까 시험에 덜컥 붙었어요. 지금이야 됐으니까 웃고 다니지만 그때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부모의 마음이 울고 자식의 마음이 울고, 자식이 우는 걸 부모가 볼 때 애처롭고 마음 아픈 것은 말로 다 못하죠.

그럴 때 그대로 애처로우 하고 사랑하고 그런 걸 누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집착을 두지 말라는 거죠. 다 하되 착을 두지 말라 이거죠. 욕심을 갖지 말고요.



그림 · 최주현

내가 남에게 주지 않으면 받을것도 없어 영혼과 불성이 돌아다니게 될때 자기 구제